

# 우리 동네 청년 멘토, 경기 청년 멘토링

## 1. 개요 및 기획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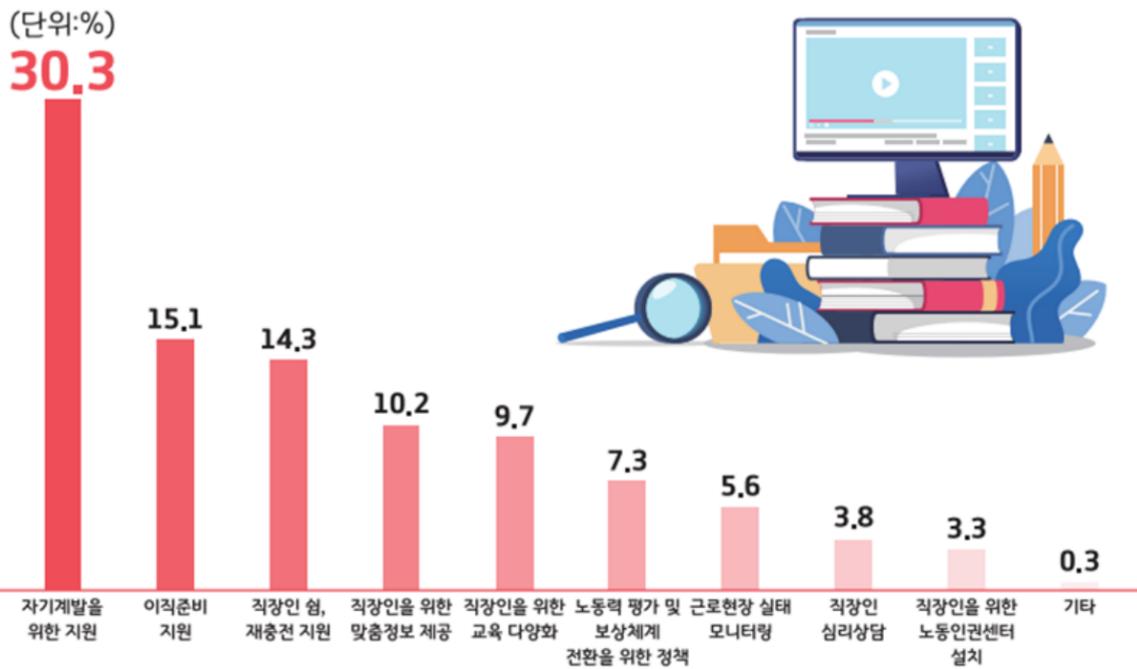
### 1.1 개요

- 현업에 종사 중인 **청년이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 중인 청년에 대해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멘토의 경우 특정 직무,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해주는 선배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벼운 포지션으로 접근한다.

### 1.2 제안 의도

- i.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보자!

## 청년 직장인에게 필요한 정책



- > 청년들의 경우,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과 이직 준비를 지원해주기를 원했음.
- > 취업이 끝이 아닌 시작인 현 시대의 자화상과 같은 느낌....

- ii.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교육을 받았을 때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자!

-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진로 상담사가 오는 경우  
> 해당 직무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보통 어떤 전공이 유리하니 뭐니...그런 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자료임.  
> 그런 것보다 포퓰어 어떤 것을 냈는 지, 학원을 다녔는 지, 독학을 했는 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할 것임.
- 연세가 지긋하고 이미 현업에서 물러난 지 한참 되신 교수님이 오신 경우  
>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해서 '열심히 해보세요'로 끝나는 사이클

- iii. 청년들이 꼽는 취업의 어려움인 **정보 부족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 취준생 84.5% 취업 정보 수집 어려움 느껴

※ MZ세대 구직자 576명 대상 조사. 자료:잡코리아

### Q. 어려움 느끼는 이유? (\*복수응답)



잡코리아

- > 정보를 얻을만한 선배가 없다면 만들어주자!



				도	시군	읍면						
총계	10,195.4	28	3	17	556			7		13,481	4,232	99,195
					38	99	419	1	4			

멘토 수	시군 구(31)	회차(월 1회)	기간	1회 비용	총 예산
10	31	12	1년	₩70,000	₩260,400,000

- 3안. 지역 별 구분 + 인구 비례에 따라 멘토를 모집할 시

> 2022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청년(만 19세 ~ 34세 기준)인구는 2,801,445명 / (만 19세 ~ 34세 기준) 인구는 3,745,492 명

> 후자를 기준으로 1만 명 당 멘토 1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 방식

인구	멘토 수	회차(월 1회)	기간	1회 비용	총 예산
3,745,492	374	12	1년	₩70,000	₩314,160,000

ii. 현금성 재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안

\* 멘토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줄이거나 하는 방향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또는 꼭 현금성 재화를 지급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ex) 감사장 수여, 지역 사회 공헌 인정 등등

### 3.4 홍보 필요 예산

i. 카카오톡 SNS 배너 홍보 비용 : 2천만원

ii 기타 홍보 방법(무료, 지자체 협조)

1.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
2. 지역 화폐 어플리케이션 홍보 영역 활용
3.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SNS에서 홍보
4. 취업 관련 사이트(사람인, 잡플레닛, 잡코리아)에서 홍보
- 5.. 취업 관련 카페(ex. 스펙업) 등에서 홍보

### 3.5 예산 관련 시트 생성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3qC9ApOYXQL505mODnpUzBTiN-E3OR4F0856hcN8hA/edit#gid=2072241350>

## 4. 정책 내용 및 진행 프로세스

### 4.1 멘토 등록

- i. 경기도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자기소개서 등 지원 동기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멘토 지원을 받는다.
- iii. 지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최대한 진정성 있게 멘토를 진행하고자 하는 청년들로 지원자를 선별한다.
- iiii. 면접에 합격한 멘토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 받아 자격 요건을 검증한다.
  - 자격 요건의 경우, 자신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형태면 무관한다.
  -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득실과 같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한다.
  -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에 준하는 작업 결과물을 통하여 경력을 증명하도록 한다.

iiii. 멘토/멘티 지원서 항목 예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3qC9ApOYXQL505mODnpUzBTiN-E3OR4F0856hcN8hA/edit#gid=155417876>

### 4.2 멘토, 멘티 매칭 과정

- i. 경기도 청년 포털에 멘토가 직접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게 꿈 페이지를 제공한다.
- ii. 해당 페이지는 멘토링을 진행할 지역, 직무 역량 등으로 멘토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iii. 멘토들은 매달 자신이 멘토링을 진행할 일시를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 멘토들의 프로필에는 해당 멘토가 멘토링을 진행할 일시가 노출된다.
- iiii. 멘티들은 등록된 멘토의 프로필을 보고 멘토를 선택할 수 있다.
  - 멘토 1인당 수용할 수 있는 멘티의 제한이 필요함.
  - 멘티가 너무 특정 멘토로 쏠리게 될 경우, 인원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음.

### 4.3 멘토링 진행 과정

- i. 매칭된 멘토에게는 사전에 자신에게 멘토링을 신청한 멘티들의 정보가 제공된다.
- ii. 멘토에게 멘티들의 정보가 전달된 뒤에는 일정 기간안에 멘티는 멘토링 진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iii.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이 늦은 경우, 추후 패널티를 부여한다.
- iiii. 멘토가 사전에 진행할 일시를 참고하여 담당 부처 공무원이 공간을 예약한 후 멘토에게 연락하여 이를 고지한다.
  -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멘토의 원하는 위치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진행한다.

### 4.4 멘토링 진행 후 처리

- i. 담당 부처 공무원은 사전에 멘토와 단체 카톡 방 등을 미리 생성하여 멘토링을 받은 멘티들을 초대한다.
  - > 이후 담당 부처 공무원은 카톡 방에서 멘토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점을 멘티들에게 알려준다.
- ii. 회 차가 거듭되더라도 멘티들은 모두 같은 톡 방에 모아두어 멘티들끼리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 iii. 멘토링 진행 후 멘토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 5. 정책의 기대 효과

### 5.1 경기도 청년의 구직 능력 향상

-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의 구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나이 차이가 많은 강사들보다 형, 선배 느낌의 친근한 멘토로서 정보를 제공한다.

## 5.2 경기도 일자리 활성화

- 청년들의 구직 능력이 활성화된다면 구인난을 겪는 일부 기업의 사정도 개선 될 것이다.

## 5.3 경기도 청년 네트워킹 강화

- 청년들이 함께 멘토와 멘티로서 공통의 주제에 대한 교류를 한다면 네트워킹이 강화될 것이다.
- 동일한 직무를 희망하거나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다는 것으로도 동지애를 느낄 수 있을 것임
  - > 블라인드와 같은 커뮤니티가 직장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로 추측 가능
- 멘토링을 통하여 네트워킹이 형성된다면 취업 이후에도 도움을 준다.
  - >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형성함

## 5.4 청년 공간 활용 개선 및 홍보

- 청년 공간들이 많지만 이를 모르는 청년이 많다. 청년 멘토링 사업을 통하여 활용된다면 청년 공간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 청년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 난다면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6. 정책 장점 및 우려 사항

## 5.1 장점

- 청년이 청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의 선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 멘토링을 받아서 취업을 한 청년이 이번엔 멘토로 교육을 제공하는 등
- 적은 비용으로 더 밀도 높은 교육을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청년 직무 교육을 위하여 경력이 많은 기업 임원급 강사를 멘토로 초빙 시 높은 비용이 소모된다.
  - 결과적으로 예산을 맞추기 위하여 한 명의 강사가 많은 수강생을 커버하는 형태가 된다면 교육의 밀도가 떨어지게 된다.

## 5.2 우려사항

- 멘토 역할을 수행할 직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교육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 장 기간을 통한 전문 교육이 아닌 해당 직무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의 길잡이 역할만 수행하면 됨
  - 따라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사전에 교육 관련 직무를 가진 청년이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강연만 제공해도 될 것
- 멘토가 책임감 있게 멘토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가?
  - 이 부분은 멘티들에게 많은 검증을 통하여 걸러질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필요함

# 7. 예외사항

- 멘토링을 신청한 멘티가 하나도 없는 멘토의 멘토링 일정
  - A. 멘토링을 신청한 멘티가 하나도 없는 멘토의 경우, 해당 달의 멘토링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달로 이관한다.
- 멘토가 그만두거나 상을 당하거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A. 지자체에서 동일 직무의 다른 멘토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일정 대타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가능한 경우, 멘티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취소한다.